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역할

임 아 영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이 슬 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비롯한 자기보고식 척도들을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다름 수용 태도를 매개로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계선 성격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성별 및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는데,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는 남성에게서,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순차 매개효과는 기혼자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경계선 성격,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슬아, (517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Tel: 055-249-2729, E-mail: seulahlee@kyungnam.ac.kr

성격적인 부적응, 성격병리의 수준은 커플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다(Smith, Jarnecke, & South, 2020).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를 포함하는 B군 성격장애는 가장 낮은 결혼 만족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커플 갈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지영, 황순택, 2012; Bouchard, Sabourin, Lussier, & Villeneuve, 2009; Chen et al., 2004). 경계선 성격장애는 유기에 대한 공포와 불안정한 정서, 그리고 불안정한 자기상과 타인상, 극단적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오가는 대인관계 패턴을 특징으로 한다(APA, 2013). 이러한 불안정성은 친밀 관계에서 만성적인 거리 조절의 실패를 야기하는데, 때로는 상대와 지나치게 가깝고 침투적인 관계를 맺다가, 급작스럽게 돌변하여 상대를 비난하며 관계로부터 철수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 경계선 성격 구조를 지닌 사람들은 분열(splitting)을 주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다양한 속성을 동시에 지닌 통합적인 인물로 바라보기 어렵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대상 표상을 지니고 있다(Kernberg, 2011). 따라서 파트너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에는, 상대를 이상화하며 인간으로서 지니는 자연스러운 한계와 단점마저 부인하다가, 상대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거절의 신호를 보낼 때에는, 상대를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며,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집착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다.

경계선 성격은 역기능적인 행동 방식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커플관계에서 공격적이고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한 지배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e Montigny-Malenfant et al., 2013; Fruzzetti & Fruzzetti, 2003).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군은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갈등 상황에서 건설적인 문제해결 시도를 적게 하는 반면, 철수, 회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uchard et al., 2009). Miano, Grosselli, Roepke와 Dziobek(2017)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더 취약하고, 정서조절의 곤란을 경험하며, 이는 곧 커플관계에서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증가와 긍정적 의사소통 및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제안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이러한 성격병리는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된 안정적인 속성으로, 단기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기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치료적 관점에서 변화시키기 힘든 성격특성보다는 개입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매개변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행동주의 커플치료(Traditional Behavior Couple Therapy: 이하 TBCT)는 개입의 주된 초점을 커플의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 및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두고,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그러나 Jacobson과 Christensen(1996)은 TBCT의 행동수정 전략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커플관계에서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통합적 행동 커플치료(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이하 IBCT) 모델을 제안하였다. IBCT는 커플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주로 성격이나 가치관 등 서로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방식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고 보았다. 행

동수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관계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서로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행동수정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특히 갈등 상황처럼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정서적으로 각성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행동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따라서 IBCT에서는 행동수정 개입에 앞서, 공감적 함께하기(empathic joining), 한결같이 초연하기(unified detachment), 인내심 구축하기(building tolerance) 같은 수용 촉진 전략을 통해 수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감적 함께하기란, 공감적 자세로 문제에 참여하도록 돕는 전략으로, 상대를 비난하기 보다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고통의 관점에서 재구성화 하도록 돕는다. 한결같이 초연하기는 상위인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자각함으로써 문제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전략을 일컬으며, 인내심 구축하기는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둔감화를 촉진함으로써,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임아영, 이훈진, 2020; Jacobson & Christensen, 1998). 이러한 수용 촉진 전략을 골자로 하는 IBCT는 TBCT에 비해 문제 재발률이 낮고,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ristensen, Atkins, Yi, Baucom, & George, 2006; Sevier, Atkins, Doss, & Christensen, 2015).

국내에서도 IBCT를 접목한 커플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이기복, 2006; 이선희, 임성문, 2013), IBCT 이론에 기반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가 개발되어 커플 대상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임아영, 이훈진, 2020). 해당

척도가 측정하는 다름에 대한 수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통해 친밀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로 정의되었으며, 다름 수용 태도는 커플관계 만족도를 비롯한 커플관계 안정성, 친밀감 같은 커플관계 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아영, 이훈진, 2020, 2021, 2022).

아직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관련성이 직접 검증된 바는 없으나,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오가는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계선 성격특성은 커플관계에서 파트너 간의 다름을 수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인 정체성 혼란(identity diffusion)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경계 혼란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이들이 겪는 대인관계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De Meulemeester, Lowyck, Vermote, Verhaest, & Luyten, 2017; Sollberger et al., 2011).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 상태, 의도, 신념, 욕구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신화(mentalization)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구분하고, 타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Fonagy & Luyten, 2009). 따라서 커플관계에서도 파트너를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지닌 개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거리감을 거절 및 유기의 사인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원만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계선 성격과 갈등해결전략, 다름 수용 태도 및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1)에서 Big 5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역할이 검증된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다름 수용 태도는 갈등해결전략에 비해 커플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명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특성에 따라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상이하였는데, 신경증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외향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에서는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플관계 만족도 개선을 위한 개입을 할 때, 성격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이 커플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신경증은 커플관계에서 다름 수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저해하여 관계 만족도를 낮추고, 친화성 및 성실성은 다름 수용을 이롭게 함으로써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사용을 촉진하여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

름 수용 태도에 대한 선행 개입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수용적 태도가 구체적인 행동전략에 선행해야 한다는 IBCT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임아영, 이훈진, 2021).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에 해당하는 Big 5 성격특성과 다름 수용 태도, 갈등해결전략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탐색되었고, 커플관계에 더욱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리적인 성격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1)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연구 방법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수용적 태도가 구체적인 문제해결 전략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IBCT의 제안처럼, 다름 수용 태도가 갈등해결전략에 선행하여 경계선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은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름 수용 태도가 매개할 것이다. 셋째,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은 순차 매개효과를 지닐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전문 리서치 업체(한국리서치)를 통해 모집된 총 3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만 18세~60세의 성인으로,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혼 커플 또는 부부이거나, 과거에 1개월 이상 커플관계를 유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기준은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0)의 선정 기준을 따른 것으로, 장기간 커플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현재 커플은 아니지만 과거 1개월 이상 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 완료 시 리서치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례비를 받았다. 전체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9.6세($SD = 11.24$)로 성별에 따른 연령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t(298)=.41, p=.686, \text{Cohen's } d=.004$. 미혼자 122명(40.7%), 기혼자 159명(53.0%),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19명(6.3%)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커플관계 유지 중인 참여자는 242명(80.7%), 현재 커플이 아닌 참여자는 58명(19.3%)이었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IRB No. 1911/003-025).

측정도구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 Borderline Features Scale: PAI-BOR). Morey(1991)가 제작한 성격평가 질문지 중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성을 측정하는 하

위척도로, 홍상황과 김영환(1998)에 의해 타당화된 23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빈약한 정서통제, 부정적 관계, 정체감 문제, 기분의 불안정성, 자기손상, 양가적 관계의 6 요인으로 구성된다. 홍상황과 김영환(199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 Scale: ADCRS). 임아영과 이훈진(2020)이 IBCT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총 22문항, 7점 리커트 형식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며,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다름에 대한 인내(예: 서로 달라서 생기는 불편을 감당하기 어렵다), 다름에 대한 역지사지(예: 서로 달라서 내가 힘든 만큼 파트너도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다름에 대한 존중(예: 파트너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면, 파트너가 나의 방식에 맞춰주길 바란다), 다름을 통한 성장(예: 서로의 차이를 통해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름에 대한 거리두기(예: 서로의 차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이러한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자 노력한다)가 다섯 요인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0)에서 단일 차원으로서는 전체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제안된 바,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다름 수용 태도 측정치로 활용하였다. 타당화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 척도(Modified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 ROCI-II). Rahim(1983)이 개발하고, Wilmot과 Hocker(2001)가 5요인 25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국내에서 Hong(2004)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피, 지배(경쟁), 타협, 양보(순응), 협력(통합)의 5요인으로 구성되며, 타협과 협력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회피와 지배는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내적 일관성은 .82,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내적 일관성은 .70으로 나타났다.

커플관계 만족도 척도(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커플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성과 한덕웅(2005)이 개발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와 기혼자에 모두 적합하게끔 원척도의 ‘이성 친구’라는 용어를 ‘파트너’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현재 커플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였고, 현재 커플이 아니라면, 과거 파트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파트너를 떠올리며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참여자의 일반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증 및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Fisher's Z transformation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상관계

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태도,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통합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이어서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Macho & Ledermann, 2011).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령과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상관은 유의하였다, $r(300)=-.23,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름 수용 태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이후 분석에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뒤 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다. 연령 및 성별 통제 시, 결혼상태에 따라 커플관계 만족도 차이가 유의하였다, $F(2, 295)=4.94, p=.008$, 부분 $\eta^2=.032$. 사후 검정 결과, 기혼 집단이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집단에 비해 커플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가구소득, 학력, 커플의 교체 기간에 따른 다름 수용

태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현재 커플 교제 중인 경우, 교제 기간에 따른 커플관계 만족도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주요 변인들 간의 편상관과 성별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경계선 성격특성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

종속변인	전체(N=300)		남(n=151)		여(n=149)		t	Cohen's d
	M	SD	M	SD	M	SD		
경계선 성격	24.01	10.14	24.23	10.55	23.79	9.74	0.37	.043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101.4	15.23	103.96	15.14	98.80	14.93	2.97**	.34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34.46	4.80	35.04	4.50	33.87	5.03	2.13*	.245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28.75	4.96	28.62	5.04	28.89	4.90	0.48	.054
커플관계 만족도	33.04	6.77	34.23	6.09	31.84	7.21	3.10**	.358

주.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타협 + 협력, 부정적 갈등해결전략=회피 + 지배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

전체(N=300)	1	2	3	4
1. 경계선 성격	-			
2. 커플관계 다름 수용	-.35***	-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15**	.30***	-	
4.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36***	-.30***	.08	-
5. 커플관계 만족도	-.30***	.50***	.28***	-.18**
남성(n = 151)	1	2	3	4
1. 경계선 성격	-			
2. 커플관계 다름 수용	-.52***	-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26**	.36***	-	
4.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42***	-.42***	.01	-
5. 커플관계 만족도	-.49***	.51***	.25**	-.32***
여성(n = 149)	1	2	3	4
1. 경계선 성격	-			
2. 커플관계 다름 수용	-.15			
3.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05	.25**		
4.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28**	-.19*	.14	
5. 커플관계 만족도	-.16	.62***	.30***	-.05

* $p < .05$, ** $p < .01$, *** $p < .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커플관계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름 수용 태도는 커플관계 만족도 및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긍정적 갈등해결 전략과 커플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 커플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상관계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은 경계선 성격과 다름 수용 태도의 상관이 유의하였던 반면, $r(148)=-.52, p<.001$, 여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r(146)=-.15, p=.073$, Fisher's $Z=-3.72, p<.001$. 다름 수용 척도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의 상관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Fisher's $Z=-2.18, p=.003$. 남: $r(148)=-.42, p<.001$, 여: $r(146)=-.19, p=.024$.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태도,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경계선 성격특성과 다름 수용 태도, 갈등해결 전략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활용하여 자기예측 취약성 및 웅대성,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긍정적·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관계 만족도에 대해 각각 세 개의 문항묶음을 구성하였다. 문항묶음은 여러 개의 개별문항 점수를 가공해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별문항 수가 많아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다(김수영, 2016). 문항묶음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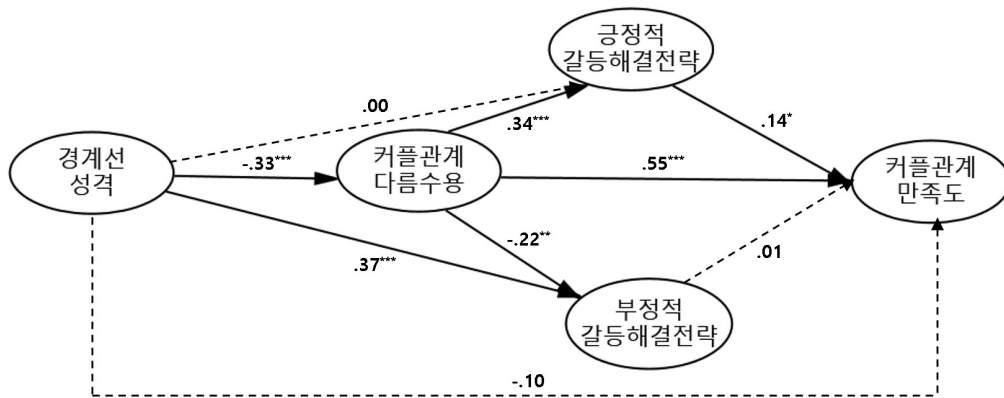


그림 1.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태도, 긍정적·부정적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

주. 표준화 회귀 계수.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p<.05$, ** $p<.01$, *** $p<.001$.

안정성이 높아지고,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Littl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요인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 각 변인에 대해 1요인 모형을 추정한 후에 부하량을 고려해 세 개의 묶음에 문항을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김수영, 2016). CMIN/df는 3보다 적어야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11), 측정 모형의 $\chi^2(80)=191.178, p<.001, CMIN/df=2.390$ 으

로 3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TLI, CFI는 .90 이상으로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이하일 경우에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작을수록 양호하다고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모형의 CFI=.958, TLI=.945로 나타났고, RMSEA=.068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 적합도는 χ^2

표 3. 측정모형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CMIN/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191.178(80)	2.390	.958	.945	.068
연구모형	202.843(81)	2.504	.954	.940	.071

표 4. 연구모형에서 성별 및 결혼상태에 따른 회귀계수

경로	남성(n = 151)			여성(n = 149)			χ^2 diff.
	B	SE	β	B	SE	β	
경계선 성격 → 커플만족도	-0.18	0.06	-.32***	-0.02	0.06	-.03	3.65
경계선 성격 → 다름 수용	-0.82	0.12	-.55***	-0.16	0.15	-.10	11.81**
경계선 성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0.02	0.04	-.06	0.02	0.04	.04	0.53
경계선 성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0.10	0.03	.37**	0.09	0.03	.31**	0.09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0.09	0.03	.35**	0.07	0.02	.28**	0.23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0.05	0.02	-.29**	-0.03	0.02	-.18	0.94
다름 수용 → 커플만족도	0.11	0.04	.29*	0.31	0.04	.64***	12.04**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만족도	0.09	0.12	.06	0.33	0.14	.18*	1.53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만족도	-0.23	0.21	-.11	0.11	0.23	.04	1.04

경로	미혼(n = 122)			기혼(n = 159)			χ^2 diff.
	B	SE	β	B	SE	β	
경계선 성격 → 커플만족도	-0.03	0.06	-.06	-0.09	0.06	-.11	0.34
경계선 성격 → 다름 수용	-0.60	0.18	-.32***	-0.48	0.13	-.33***	0.29
경계선 성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0.04	0.04	-.11	0.00	0.05	.00	0.46
경계선 성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0.09	0.03	.30*	0.10	0.03	.37***	0.17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0.06	0.02	.28*	0.12	0.03	.36***	2.16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0.06	0.02	-.33***	-0.03	0.02	-.18	1.02
다름 수용 → 커플만족도	0.15	0.04	.44***	0.30	0.04	.56***	6.47*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만족도	0.32	0.16	.20*	0.31	0.13	.19*	0.01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 커플만족도	-0.03	0.25	-.01	-0.26	0.23	-.09	0.42

* $p<.05$, ** $p<.01$, *** $p<.001$.

표 5.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방식의 매개효과

경로	<i>B</i>	<i>LLCI</i>	<i>ULCI</i>
전체(<i>N</i> = 300)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커플만족도	-.11***	-.161	-.067
경계선 성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10	.014
경계선 성격→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20	.024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21	-.002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05	.006
남성(<i>n</i> = 151)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커플만족도	-.09**	-.152	-.036
경계선 성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27	.006
경계선 성격→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46	.015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26	.010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24	.005
여성(<i>n</i> = 149)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커플만족도	-.05	-.132	.025
경계선 성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12	.032
경계선 성격→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14	.045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18	.001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00	.008
미혼(<i>n</i> = 122)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커플만족도	-.08***	-.148	-.032
경계선 성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37	.007
경계선 성격→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23	.033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31	.001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12	.013
기혼(<i>n</i> = 159)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커플만족도	-.12***	-.203	-.059
경계선 성격→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31	.024
경계선 성격→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43	.023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1**	-.033	-.002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커플만족도	.00	-.012	.005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번, L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boot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 $p < .01$, *** $p < .001$.

(81)=202.843, $p<.001$, CMIN/df=2.504로 3보다 작고, CFI=.954, TLI =.940로 양호했으며, RMSEA=.071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경계선 성격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10$, $p=.097$. 그러나 경계선 성격은 다름 수용 태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beta =-.33$, $p<.001$,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beta=.37$, $p=.001$.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00$, $p=.095$. 다름 수용 태도는 커플관계 만족도, $\beta =.55$, $p<.001$,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eta=.34$, $p<.001$,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beta=-.22$, $p=.001$. 한편,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eta =.14$, $p=.018$,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1$, $p=.089$.

성별 및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부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계선 성격이 다름 수용 태도로 이어지는 경로와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각각 χ^2 diff.=11.81($df=1$, $p=.001$), χ^2 diff.= 12.04($df=1$, $p=.001$).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름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미혼 집단과 기혼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χ^2 diff.=6.47($df=1$, $p=.011$).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

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단일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B=-.11$, $p<.001$, 95% CI[-.161~-0.067], 다름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1$, $p=.005$, 95% CI[-.021~-0.002].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단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9$, $p=.003$, 95% CI[-.152~-0.036].

미혼자와 기혼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미혼의 경우,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단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8$, $p=.001$, 95% CI[-.148~-0.032]. 기혼자의 경우, 다름 수용 태도의 단일 매개효과와 더불어 다름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각각 $B=-.12$, $p<.001$, 95% CI[-.203~-0.059], $B=-.01$, $p=.009$, 95% CI[-.033~-0.002].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과 다름 수용 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경계선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다름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경계선 성

격이 커플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의 다름을 수용하면서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와 관련될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이러한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은 커플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다름 수용 태도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계선 성격은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것을 저해하며,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지배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름 수용 태도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및 커플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다름 수용 태도가 경계선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름 수용 태도는 커플의 문제해결 방식 및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재검증하였다(임아영, 이훈진, 2020, 2021). 또한, 경계선 성격 같은 병리적인 성격특질이 커플관계에 발현되는 과정에서 다름 수용 태도가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연구모형에 다름 수용 태도, 갈등해결전략 같은 매개 변인들이 투입됨에 따라서, 경계선 성격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다른 경로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매개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이 커플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다름 수용 태도의

단일 매개효과와 다름 수용 태도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이어지는 순차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은 커플관계에서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곧 갈등 상황에서 서로 타협하거나 협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대처를 저해함으로써 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커플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Bouchard et al., 2009; De Meulemeester et al., 2017; Sollberger et al., 2011), 이러한 거리조절의 실패와 비수용적 태도가 원만한 커플관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반면, 긍정적,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바, 경계선 특성이 높은 사람에게 커플치료를 실시할 때, 갈등해결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다름 수용 태도 증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행동수정 전략에 앞서, 수용 촉진 전략이 선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IBCT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Jacobson & Christensen, 1996).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름 수용 태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같은 변인이 매개 변인으로 함께 투입됨으로써,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이 커플관계 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경로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자신의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으나,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은 자신의 커플관계 만족도보다는, 파트너의 커플관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을 대상으로 자기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을 적용함으로써, 매개 효과가 자기와 상대방에게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상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Jacobson과 Christensen (1996)은 전통적 행동치료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정서적으로 각성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행동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커플이 행동치료를 통하여 긍정적인 행동 전략을 익히더라도, 치료자가 중재하는 치료 장면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을 벗어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 되면, 기존의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익숙한 행동방식 대신에 새롭게 익힌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에너지가 고갈되기 쉽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적 행동 패턴을 따르게 된다. 특히나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억누르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Chapman, 20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동수정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행동치료 대신에 정서적 고통의 감내와 수용을 강조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DBT)가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 기반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May, Richardi, & Barth., 2016; Swales, Mark, Williams, & Michaela, 2000). IBCT는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DBT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나, DBT가 정서적 고통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IBCT는 ‘나의 기대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파트너의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Jacobson & Christensen, 1996). 또한, DBT의 목표가 수용을 통한 정서적 고통의 완화인데 반해, IBCT에서 말하는 수용은 고통 감내를 의미하는 소극적 수용 요소와 성장을 지향하는 적극적 수용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즉 IBCT에서 말하는 수용은 커플관계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친밀감 증진이라는 성장과 발전적 요소를 포함하는 적극적 수용이다(임아영, 이훈진, 2020; Cristensen & Jacobso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름 수용 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능력뿐 아니라, 커플이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개입이 실제로 커플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밝히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상관분석 및 구조모형분석, 매개효과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다름 수용 태도와 경계선 성격특성

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일부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는데, 경계선 성격이 다른 수용 태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을 구별하여 매개분석을 시도한 결과, 남성에서만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른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의 경계선 성격은 다른 수용 태도, 커플관계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커플관계에서 다른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이 커플관계 만족도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계선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성격적 요소와 관계없이 다른 수용 태도는 여성의 커플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Big 5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른 수용 태도와 갈등해결전략의 역할을 살펴본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1)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개인적인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성은 성격특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과업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 커플관계에 반영되기 쉬운 반면, 여성의 경우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높기에 자신의 개인적

특성보다, 파트너 특성이나 상호작용방식 같은 다른 관계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석될 수 있다(임아영, 이훈진, 2020, 2021, 2022; 조영주, 2017, 2019).

추가적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른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혼 집단보다 기혼 집단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분석 결과, 경계선 성격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른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는 미혼과 기혼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나, 기혼 집단의 경우, 다른 수용 태도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순차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기혼자의 경우, 다른 수용 태도가 커플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혼자보다 크고, 기혼자들의 다른 수용 태도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커플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1)에서는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이 커플관계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서 미혼자의 경우, 다른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던 반면, 기혼자에서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갈등 장면에서 긍정적인 행동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제안하였다(임아영, 이훈진,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 다른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가 주요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를 짐작해 보자면,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성격특성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Big 5 성격특성 중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은 커플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와 파트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커플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Sayehmiri et al., 2020; Shackelford et al., 2008). 반면, 경계선 성격은 병리적 성격 요소로서 커플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 같은 부정적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발현될 때에는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행동 전략보다,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커플관계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기초한 Hayes(2013)의 PROCESS macro 모델을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으므로 분석 방법에 따른 차이가 상이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우종필, 2015).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해석상 제한이 있으며, 추후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 받은 임상 집단에 대한 비교 검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파트너 및 임상가 평정을 함께 실시하고, 관측 방식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포함된 경계선 성격, 다름 수용 태도, 긍정적 및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 또한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총점을 사용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하위요인 별로 세부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위요인 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주요 개념들 간의 중첩성을 배제한 고유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고, 주로 대학생 대상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 외의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포함하므로 척도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성격특성 중 경계선 성격을 제외한 다른 병리적 속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경계선 성격 외에 커플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병리적 성격특성과 다름 수용 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차원의 성격특성을 연속선 상에서 평가하는 밀론 다축 임상성격검사(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IV, MCMI-IV; Millon et al., 2015)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는 현재 커플관계를 유지 중인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 커플이 아니지만, 과거 1개월 이상 커플 교체 경험이 있는 참여자도 포함되었다. 현재 커플이 아닌 참여자의 경우, 과거 파트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떠올리며 회고적으로 커플관계 만족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정확도가 부족하다. 다만, 이러한 선정 기준은 선행 연구(임아영, 이훈진, 2020)의 지침을 따른 것으로, 현재 커플관계 유지 중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낮거나, 다름 수용 태도 및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사용이 높은 사람들만 포함됨으로써 연구 결과가 편향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더불어 현재 커플이 아닌 참여자의 수는 58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표본을 균형 있게 충분히 모집함으로써, 교제 여부 및 교제 기간 등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커플관계에 영향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입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계선 성격특성이 두드러지는 내담자에 대한 커플 치료에서, 자신과 파트너의 다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를 활용하여 IBCT의 이론적 전제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행 연구의 문제 의식을 확장,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 송두리, 문정숙, 김영희 (2012).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0(1), 65-76.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델 및 조절된 매개모델에 대한 고찰: 만족, 신뢰, 의존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3(4), 45-56.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기복 (2006).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희, 임성문 (2013). 통합적 행동부부치료에 기초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49-476.
- 임아영, 이훈진 (2020). IBCT에 기반한 커플관계 다름 수용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4), 599-632.
- 임아영, 이훈진 (2021). 성격특성과 커플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과 다름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23-149.
- 임아영, 이훈진 (2022). 자기보고 커플관계 다름 수용 태도 및 파트너의 다름 수용 태도에 대한 지각과 커플관계 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5), 719-743.
- 장지영, 황순택 (2012). 부부의 성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33-148.
-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탄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 조영주 (2019). 부부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67-85.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259-271.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 연구*, 28(2), 321-353.
- Bouchard, S., Sabourin, S., Lussier, Y., & Villeneuve, E. (2009). Relationship quality and stability in couples when one partner suffers from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arital Family Therapy*, 35(4), 446-455.
- Chapman, A. L. (2019).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3), 1143-1156.
- Chen, H., Cohen, P., Johnson, J. G., Kasen, S., Sneed, J. R., & Crawford, T. N. (2004). Adolescent personality disorders and conflict with romantic partner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6), 507-525.

- Christensen, A., Atkins, D. C., Yi, J., Baucom, D. H., & George, W. H. (2006). Couple and individual adjustment for 2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180-1191.
- De Meulemeester, C., Lowyck, B., Vermote, R., Verhaest, Y., & Luyten, P. (2017). Mentaliz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mediating role of identity diffusion. *Psychiatry Research, 258*, 141-144.
- De Montigny-Malenfant, B., Santerre, M.-È., Bouchard, S., Sabourin, S., Lazaridès, A., & Bélanger, C. (2013). Couples' negative interaction behaviors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1*(3), 259-271.
- Fonagy, P., & Luyten, P. (2009). A developmental, mentalization-based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355-1381.
- Fruzzetti, A. E., & Fantozzi, B. (2008). Couple therapy and the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and related disorders. In A. S. Gurman (Ed.),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567 - 590).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3).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2.16.1)[Software].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Lee, J., & Hyun, M. H. (2020). 경계선 성격 성향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stress, 28*(4), 262-268.
- May, J. M., Richardi, T. M., & Barth, K. S. (2016).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as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 Health Clinician, 6*(2), 62-67.
- Miano, A., Grosselli, L., Roepke, S., & Dziobek, I. (2017). Emotional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its influence on communication behavior and feelings in romantic relationship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95*, 148-157.
- Millon, T., Grossman, S. D., & Millon, C. (2015).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IV manual*. MN:National Computer Systems.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screener*.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 Sayehmiri, K., Kareem, K. I., Abdi, K., Dalvand, S., & Gheshlagh, R. 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marital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C psychology, 8*(1), 1-8.
- Sevier, M., Atkins, D. C., Doss, B. D., & Christensen, A. (2015). Up and Down or Down and Up? The Process of Change in Constructive Couple Behavior during Traditional and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1), 113-127.
- Shackelford, T. K., Besser, A., & Goetz, A. T. (2008).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probability of marital infide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6*(1), 13-25.
- Smith, M. S., Jarnecke, A. M., & South, S. C. (2020). Pathological personalit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ntimate partner aggression: Analyses using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lternative model of personality

disorder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1(6), 398-408.

Sollberger, D., Gremaud-Heitz, D., Riemenschneider, A., Küchenhoff, J., Dammann, G., & Walter, M. (2011). Associations between identity diffusion, axis II disorder, and psychopathology in in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ology*, 45(1), 15-21.

Swales, H. L. H., J. Mark G. Williams, Michaela. (2000). Linehan's dialectical behaviour therapy (DB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Overview and adapta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9(1), 7-23.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 (6 ed.). Boston, MA: McGraw-Hill.

원고접수일: 2023년 7월 13일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31일

게재결정일: 2023년 8월 3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3, Vol. 28, No. 4, 931 - 949

Borderline Personality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 The Mediating Roles of Accepting Difference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h Young Lim
College of Liberal Arts
Kangnam University

Seul-Ah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accepting difference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n the influ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on couples'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data of 300 adults who completed the Acceptance for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Scale (ADCRS) and other self-reporting sca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ile borderline personality did not directly impact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significantly impacte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accepting differenc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ccepting differences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Notably,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were observed. Specifically, accepting difference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or men, but not for women. Additionall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accepting differences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as only significant for married individuals, but not for unmarried individual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words: *borderline personality, accepting differences in couple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relationship satisfaction*